

‘李변’ 일어날까? ...순천·곡성에 쏠린 눈

정현

오늘 7·30 재보선 투표, 광주·전남 4곳 등 15곳서 실시
밤 12시 계 당락 결정 ... 서갑원과 박병승부 최대 관심

‘미니 총선’이라 불리는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투표가 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이번 재보선은 ▲광주 광산을 ▲순천·곡성 ▲나주·화순 ▲담양·함평·영광·장성 등 광주와 전남지역 4곳을 비롯해 ▲서울 동작을 ▲경기 수원을 ▲경기 수원병 ▲경기 수원정 ▲경기 평택을 ▲경기 김포 ▲부산 해운대·기장갑 ▲대전 대덕 ▲울산 남구를 ▲충북 충주 ▲충남 서산·태안 전국 15곳에서 치러진다.

〈관련기사 3·4면〉

투표는 광주·전남지역 4개 선거구 324곳의 투표소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총 1003곳의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강제지역인 영남과 호남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이 한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는 만큼 선거일 투표율과 날씨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7·30 재보선의 결과는 ‘미니 총선’인 만큼 정국 흐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여야 모두 선거운동 마지막날까지 사활을 걸고 총력전을 펼쳤다.

누가 승리하느냐에 따라 9월 정기국회

를 포함한 국정 운영의 주도권이 결정되고, 여야 지도부의 리더십이 재평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지역구도 타파와 지역감정 해소 등을 내걸고 순천·곡성에 출마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의 당선 여부와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략공천으로 선거에 뛰어들 권은희 후보의 득표율에 주목하고 있다.

순천·곡성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정현 후보가 당선되면 1988년 소선거구제 도입 이후 광주·전남에서 새누리당(한나라당 등 포함) 국회의원이 처음으로 탄생하게 된다.

광주 광산에 출마한 권은희 후보는 지난 대선 때 국회의원의 맛과사건에 대한 수사외 의혹을 폭로했던 당사자로서 이번이 없는 한 당선이 유력하지만, 전략공천에 대한 지역민의 반감과 남편의 부동산 임대업 논란 등으로 인해 득표율이 어느 정도 될지가 관심이다.

한편, 선관위는 이번 재보궐선거의 당선자 윤곽은 밤 11시께 드러날 것으로 전망했으며, 초접전지역인 수도권 등은 자정을 넘겨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추위요” 수락폭포의 여름 여름철, 구례 수락폭포는 늘 북적이다. 구례 10경 중의 하나로, 15m에 달하는 높이에서 쏟아지는 물을 맞으면 자연 마사지 효과도 있어 폭포수를 맞으러 전국에서 피서객들이 몰려온다. 29일 피서객들이 온몸을 세차게 때리는 낙수를 맞으며 무더위를 식히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지역 국회의원 14명 “호남고속철 송정-목포 新線으로”

“무안공항 연계 2017년 완공을”

광주·전남 국회의원 14명은 29일 공동 성명을 내고 “호남고속철 ‘광주 송정-목포’ 구간은 신선으로 건설하되, 애초 약속대로 오는 2017년 완공 일정에 최대한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는 지난 2006년 호남고속철 건설 기본계획 수립 당시 2017년까지 완공하기로 한 송정-목포 구간에 대해 세 차례의 타당성 용역만 반복한 채 아직 노선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송정-목포 노선을 확정하지 못한 것이 지자체 간 견해 차이 때문이라는 핑계만 내놓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국회의원들은 “호남고속철 건설사업은 영·호남 불균형 발전을 바로잡고 호남을 수도권에 편입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21세기 호남 대도약의 발판이 될 사업”이라며 “지금과 같이 계속 차질을 빚는다면 애초 기대했던 목표를 달성할 수도 없고, 달성한다 해도 그 기대는 반감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호남고속철 송정-목포 구간은 향후 제주까지 연결한다는 백년대계의 국토교통망 구축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신선을 통해 무안공항과 반드시 연계돼야 한다”며 “앞으로 급증하게 될 중국과의 경제교류에도 무안공항 연계 노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학교설립 60주년 기념
선교대회
일시: 10월 19일(주일)~22일(수)
장소: 광신대학교, 광주신일교회
광신대학교 062)605-1000

알립니다

영·호남 문화교류 대축전

희망달빛

10월 13~15일 서울시청 앞 광장
상생·교류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영 지역 농·수·축 특산물도 판매

영·호남 지역민들이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만나 정겨운 소통의 잔치를 벌입니다.

영·호남 대표 언론사인 광주일보와 매일신문은 가을이 무르익는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영·호남 문화교류 대축전’

을 개최합니다.

대한민국의 심장부에서 영남과 호남이 만나는 이번 대축전은 기존의 ‘아름다축전’을 대폭 확대한 행사입니다. 참가자 모두가 흥겹게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두 지역에서 엄선된 영·호남 농·수·축 특산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남과 호남의 상생과 교류를 목표로 열리는 이번 행사를 통해 두 지역은 라이벌이 아닌 소중한 파트너로 거듭날 것입니다. 민족 대통합의 시발점이자 동서 화합의 교두보가 될 이번 대축전에 광주·전남·전북 지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행사명 : 2014 영·호남 문화교류 대축전
- 일 시 : 2014년 10월 13일(월)~15일(수)
- 장 소 : 서울시청 앞 광장
- 주 최 : 광주일보, 매일신문
- 주 관 : 영·호남상생포럼, (사)아시아문화
- 홍보판매부스 운영자 모집 : 호남권 특산품생산단체 (선착순 모집·배치)
- 문 의 : 행사위원회 광주·전남본부, 062-220-0555

光州日報社

자사고 교장들 “송원고 탄압 연대 투쟁”

전국 40명 “조건부 지정 철회”

송원고 학부모들 입장 밝힐듯

전국 자율형사립고(자사고) 교장들이 “광주 송원고의 자사고 조건부 재지정을 철회하라”고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했다. 철회하지 않으면 가처분·행정소송 제기 등 공동으로 법적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송원고 학부모들도 29일 오후 7시 회의를 열어 ‘조건부 재지정’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29일 송원고와 전국자사고교장연합회에 따르면 전국 자사고 교장들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호텔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송원고 조건부 지정 연장’, ‘인산동산고 재지정 취소’ 등 자사고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광주 송원고·송덕고 교장 등 전국 자사고 교장 40명 가량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회의 후 기자회견을 열어 ‘성적제한 폐지, 선발권 박탈’ 등을 내건 광주시교육청의 ‘송원고 조건부 재지정’을 철회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6월 법령에 근거해 교육부가 정한 지표에 따라 이뤄진 평가를 무시한 채 재평가 운운하며 일방적으로 전환할 것을 강요하고 협박하는 행위는 교육감으로서서는 해서는 안 될, 규정도 없고 비교육적 행위”라며 “자사고를 탄압하는 일체의 부당한 행위에 강력히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조명환 송원고 교장은 “이날 회의는 진보교육감의 자사고 탄압에 맞선 자사고 교장들의 결의대회 수준이었다”며 “몰려선 없이 끝까지 연대해 함께 대응하자고 결의했다”고 전했다.

송원고는 이날 광주시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연장 승인을 공식 통보함에 따라 이번 주 내 모집요강이 담긴 내년도 모집전형용 시교육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송원고는 모집전형에 기존과 같이 ‘중학교 내신 상위 30%내 추천 선발’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광주시교육청이 재지정 전제조건으로 내건 ‘성적제한 폐지’와 정면 배치된 것이어서 교육청의 대응이 주목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NEW
수용 가능한 성분
사용하여 안전하며

한울
올려원액

당신이 가장 예쁜 날은 바로 오늘이어야 하니까

갈색 솔잎 에너지로 맑고 생생한 오늘피부-한울 올려원액

당신이 가장 예쁜 날은 항상 과거에만 있나요?
기존 대비 3.8배* 농축된 갈색 솔잎 추출물을 담아 새로워진 한울 올려원액을 만나보세요!
갈색 솔잎 추출물이 무더진 피부를 깨끗하고 피부 속 깊이 촉촉한 생기를 전달하니까
맑고 생생한 피부를 가진 오늘이 당신의 가장 예쁜 날이예요.

*인체 피부에 대한 인체 실험 결과

맑고 생생한 오늘피부를 위한 5가지 피부 개선효과

피부가 촉촉하게 재워지는 느낌이다	100%	피부가 부드럽고 매끄러워졌다	99%
윤기가 더해져 탄력 있어 보이는 느낌이다	99%	피부가 탄력 있어졌다	99%
단순히 자외선 차단이 아니라	98%	피부가 맑아졌다	98%

*인체 피부에 대한 인체 실험 결과 (총 100명 대상, 2014.7.23-25, 30분 측정)

한울 韓律

전국 주요 약국, 화장품점, 편의점, 백화점, 대형마트, 약국, 화장품점, 약도판매처 (www.apms.co.kr)에서 판매를 만나주세요. *고객상담실 (062-623-5254)